

# 아르헨티나 정권교체의 의미와 시사점

**김진오**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선임연구원 (jokim@kiep.go.kr, Tel: 044-414-1085)

**박미숙**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전문연구원 (misookp@kiep.go.kr, Tel: 044-414-1105)



## 차 례

1.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와 페르난데스의 당선 배경
2. 주요 경제·사회 정책 및 채무 구조조정 전망
3. 대외관계 전망
4. 평가 및 시사점

## 주요 내용

- ▶ 아르헨티나는 2019년 10월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(Alberto Fernández)가 48.1%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좌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.
  - 마크리 대통령(Mauricio Macri, 2015~19년)의 경제정책 실패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한 서민들의 생활고 증가가 페르난데스의 주요 당선 배경임.
- ▶ 마크리 정부의 친시장주의와 달리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제에 일정수준 개입하면서 △공공부채 축소 △재정적자 축소 △물가관리 △빈곤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.
  -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와 부채 감소를 위해 수출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고, 개인 재산세를 인상하며, 주요 식료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.
  - 마크리 정부 기간 악화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층의 식량 지원을 확대하는 '국가식량안보프로그램(Argentina sin Hambre)'을 시행할 계획임.
- ▶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 채무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, 페르난데스는 액면가 조정(헤어컷)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구조조정 시행을 원하지만, 헤어컷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
  -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마크리 정부 집권 기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2/4분기 기준으로 원금이 약 2,836억 달러이고, 1년 미만 단기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1,056억 달러임.
  - 2019년 8월 예비대선 이후 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자본유출이 늘고 환율이 상승하자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환율을 방어하였으며,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10월 21일 기준 약 470억 달러에 불과함.
  - 현재 2026~2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액면가 1달러당 40센트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, 차기 정부에서 채무구조조정을 한다면 헤어컷은 불가피할 것임.
- ▶ 남미공동시장 대외개방에 대한 브라질과의 견해 차이와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 차이로 브라질 및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.
  - 페르난데스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개방이 자국 산업에 가려올 피해를 우려하여 대외개방에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갈등이 예상됨.
  - 마크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에 있어 미국 중심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지만, 페르난데스는 마크리 정부의 노선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됨.
- ▶ 페르난데스는 페론당의 급진좌파 세력을 포용하면서 당선에 성공했지만 실용주의적인 온건좌파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정부의 채무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, 진행 중인 '한-Mercosur 무역협정(TA)' 협상에서 아르헨티나의 시장보호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
## 1.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와 페르난데스의 당선 배경

■ 2019년 10월 27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(Alberto Fernández)가 48.1%의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좌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.

- 지난 8월에 치러진 예비대선에서 페르난데스가 47.7%의 득표율로 재선에 나서는 마크리 대통령에 15.6%p 차로 압승을 거두어 10월 대선에서 페르난데스의 당선이 확실시 되었음.

■ 페르난데스는 페론주의자 가운데 온건좌파로 전문적인 정치협상가이지만, 자체적인 지지기반이 약해 부통령 후보로 나선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(이하 크리스티나, Cristina Elisabet Fernández de Kirchner, 2007~15년)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배경으로 당선됨.

- 페르난데스는 네스토르(Néstor Carlos Kirchner, 2003~07년) 및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정치협상가로 성장하였고, 페론주의자 가운데 온건좌파에 충실한 정치적 성향을 대변함.
  - 1999년 페론당 출신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주지사 에두아르도 두알데(Eduardo Duhalde, 2002~03년 과도정부 대통령 역임)의 대선캠프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고, 2000년 페론당-보수당 연합 후보로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섰다.
  -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총리로 재임 중이던 2008년에 농산물 수출세 부과를 놓고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사임하였고, 이후 크리스티나 정부 정책에 매우 비판적 자세를 견지함.
- 페르난데스는 비록 크리스티나 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이였지만, 정치협상가답게 전면적인 적대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음.
  - 이러한 유연한 관계를 활용하여 분열된 페론당을 통합하였고, 5월에 新중도좌파 연합정당인 '모두의 전선(Frente de Todos)'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됨.
- 자체적인 지지기반이 약한 페르난데스의 당선에는 저소득층과 좌파 지식인의 지지를 받은 크리스티나 부통령 당선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함.
  - 따라서 페르난데스는 집권 이후 자체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페론주의 급진좌파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.

■ 마크리 대통령(Mauricio Macri, 2015~19년)의 경제정책 실패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의한 서민들의 생활고 증가가 페르난데스의 주요 당선 배경임.

- 마크리 대통령은 중도우파 성향으로 친시장주의를 표방하며 경제회복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, 임기 동안 심각한 경기침체와 외환위기를 겪음.
- [성장률] 대통령 취임(2015년 12월) 직후인 2016년부터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왔는데, IMF에 따르면 2019년 GDP 성장률이 -3.1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- [빈곤] 빈곤율은 경기침체와 함께 증가하여 2018년 상반기 27.3%에서 2019년 상반기에 35.4%로 확대되었고, 14세 미만 어린이의 빈곤율은 52.6%에 달함.
- [물가]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이 20~30%를 기록하였으나 마크리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41.4%까지 상승하였고, 2019년 물가상승률은 50%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.
  - o 마크리 정부의 외환규제 해제와 자유변동환율제 채택으로 발생한 급격한 환율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졌고, 재정지출 축소(보조금 폐지)로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물가상승을 가속화함.
- [외환위기]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자본유출과 외환보유고 감소로 이어지자 정부는 2018년 5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.
  - o 57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비상긴축재정조치(2019년 균형재정 달성)를 실행하였으나, 그로 인해 경기가 더욱 악화됨.

그림 1. 경제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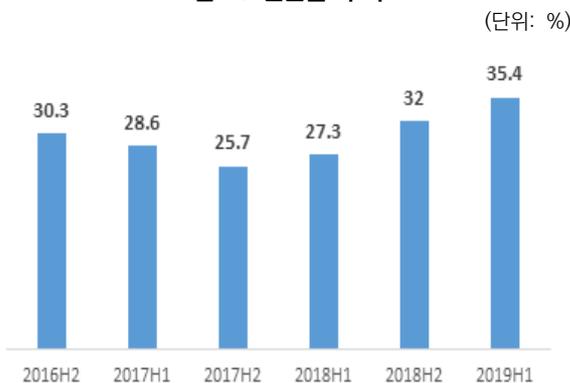
주: 2019f는 2019년 예상치.  
자료: Oxford Economics; IMF.

그림 2.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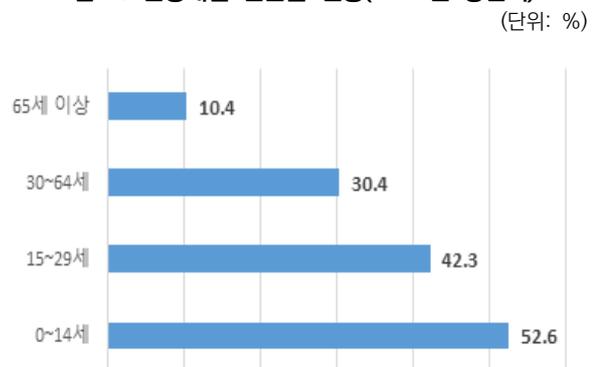
주: 2019f는 2019년 예상치.  
자료: Oxford Economics.

그림 3. 빈곤율 추이



자료: 아르헨티나 통계청(INDEC).

그림 4. 연령대별 빈곤율 현황(2019년 상반기)



자료: 아르헨티나 통계청(INDEC).

## 2. 주요 경제·사회 정책 및 채무 구조조정 전망

■ 마크리 정부의 친시장주의와 달리 페르난데스 정부는 경제에 일정수준 개입하면서 △공공부채 △재정적자 △물가 관리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됨.

- 마크리 정부에서 약화되었던 경제부의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개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.
- [부채, 재정] 정부의 재정수입 증대와 부채 감소를 위해 수출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고, 개인 재산세 인상 등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.
  - 2019년 2/4분기 기준으로 정부부채는 GDP의 약 83.6%, 재정수지는 GDP 대비 약 3.2%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
  - 마크리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12%의 수출세<sup>1)</sup>를 부과하고 있으며, 페르난데스 정부는 수출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할 계획임.
  - 재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, 자산가들의 탈세를 막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해 개인 재산세 인상이 예상됨.
- [물가] 2019년 9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.4%로, 특히 식음료 가격상승률이 56.5%로 높아 페르난데스 정부는 주요 식료품의 가격 인상을 제한할 계획임.

■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마크리 정부 기간 악화된 빈곤문제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.

- 마크리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취했던 긴축정책이 빈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, 이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페르난데스를 선택했으므로 빈곤해소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.
- 페르난데스는 지난 10월 7일 관·민·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방평의회(Federal Council)를 설치하여 국가 식량안보프로그램인 'Argentina sin Hambre'를 시행할 것이라 공약한 바 있음.
  - 연방평의회는 △지속가능한 식품정책 시행 △기초식품 가격 인하 △고용 창출 △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 △빈곤층 이하 국민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△건강 관련 제품 가격 인하 등임.
- 마크리 정부도 지난 8월 예비대선 패배 직후 서민층의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협조를 받아 「긴급 식품지원법(emergencia alimentaria)」을 발의했음.
  - 해당 법안은 2022년까지 시행되며, 주요 내용은 식품지원 관련 예산을 50% 늘려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것임.

■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 채무구조조정이 불가피함.

1) 수출세는 기본적으로 FOB(Free On Board) 가격의 12%이지만, 1차 상품의 경우는 FOB 가격 1달러당 4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, 나머지 제품은 달러당 3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됨. 즉 FOB 가격의 12%와 달러당 4페소(또는 3페소) 중 작은 값으로 부과함.

- 아르헨티나의 외채는 마크리 정부 집권 기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2/4분기 기준으로 원금이 약 2,836억 달러인데, 이 중 정부와 중앙은행의 채무만 약 70%를 차지함.
-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외채는 2019년 2/4분기 기준으로 약 3,751억 달러이고, 이중 1년 미만의 단기채가 1,056억 달러로 전체의 약 28.2%를 차지함.
  - 2019년 2/4분기 기준으로, 채권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상환해야 할 금액이 약 300억 달러, 6개월 안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약 335억 달러임.
- 그러나 예비대선 이후 경제에 대한 불신으로 자본유출이 늘고 환율이 상승하자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를 사용해 환율을 방어하였으며, 그 결과 외환보유고는 10월 21일 기준 약 470억 달러로 축소됨.

표 1. 만기별 외채(원금+이자) 현황(2019년 Q2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분	상환 시기	금액	비중
단기	즉시 <sup>2)</sup>	30,535	8.1
	0~3개월	24,518	6.5
	3~6개월	9,056	2.4
	6~9개월	7,836	2.1
	9~12개월	33,694	9.0
	소계	105,639	28.2
장기	12~18개월	10,657	2.8
	18~24개월	14,484	3.9
	24개월 이상	244,313	65.1
	소계	269,454	71.8
전체		375,093	100.0

자료: 아르헨티나 통계청.

표 2. 통화별 외채(원금) 현황(2019년 Q2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분	구분	금액	비중
외화표시	단기	80,480	28.4
	장기	180,639	63.7
	소계	261,119	92.1
페소화표시	단기	10,127	3.6
	장기	12,321	4.3
	소계	22,448	7.9
전체		283,567	100.0

자료: 아르헨티나 통계청.

■ 페르난데스는 액면가 조정(헤어컷)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구조조정 시행을 원하고 있지만, 액면가 상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.

- 외채상환 부담으로 마크리 정부는 지난 8월 말 약 1,07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만기연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.
  - 만기를 연장하려는 외채를 세분해 보면 △단기외채(130억 달러) △외국법 아래 발행된 채권(300억 달러) △국내법 아래 발행된 채권(200억 달러) △IMF 차관(445억 달러)이 해당됨.
  - 특히 외국법과 국내법 아래 발행된 합계 500억 달러의 채권은 대부분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, 이 채무에 투자자들이 '자발적으로 만기를 연장'하도록 할 계획임.
- 페르난데스 차기 정부도 액면가 조정 없이 만기만 연장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,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.

2) 요청 즉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함.

- 헤어컷 없는 채무구조조정을 통해 차기 정부가 시장 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채무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고자 함.
- 현재 2026~28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액면가 1달러당 40센트 이하로 거래되고 있어, 차기 정부에서 채무구조조정을 한다면 헤어컷은 불가피할 것임.

■ 마크리 정부는 빠르게 소진되는 외환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해 자본 및 외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, 이러한 외환통제 정책은 페르난데스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
- 디폴트를 비롯한 경제적 위험요인이 증가할 때마다 자본이탈이 발생해 폐소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, 중앙은행이 폐소화 방어에 주력하면서 외환보유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.
- 2019년 8월 11일 치러진 예비대선에서 페르난데스 후보가 압승을 거두자 12일 폐소화 가치가 장중 33%까지 하락하다가 17% 하락으로 마감한 바 있음.
- 또한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시장이 불신하면서 8월 26일 달러당 57.2페소였던 환율이 28일에는 60.2페소로 인상된 바 있음.
-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투입한 결과, 외환보유고는 2019년 7월 688억 달러에서 10월 21일 469억 달러로 급감함.
-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외환사용을 통제하는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이는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- △은행과 기업의 외환 매입 및 해외송금 시 당국 승인 필요 △개인은 월 200달러 내에서 매입과 해외송금 가능 △곡물 수출기업은 외화대금 수취 후 5일 내 혹은 선적 허가 후 15일 이내 중 빠른 날짜에 국내 송금 및 환전 △기타 수출기업은 선적허가 후 180일 이내 외화 국내 송금 및 환전

그림 5. 외환보유고 추이

(단위: 십억 달러)



자료: 아르헨티나 중앙은행.

그림 6. 환율 추이

(단위: 페소/달러)



자료: 아르헨티나 중앙은행.

### 3. 대외관계 전망

■ 그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우파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(Mercosur)의 대외개방을 위해 연대했으나, 페르난데스 당선자가 보호주의를 견지하면서 브라질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.

- 남미공동시장은 대내외적으로 폐쇄성이 강해 관세가 높고 통관절차 및 인증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임.
  -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파라과이를 정회원국으로 하고 있지만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절대적인 경제규모를 차지하는 비대칭적인 구조의 경제동맹임.
  - 회원국간에도 폐쇄성이 존재해 공동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시장을 개방하지 않음.
-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마크리 대통령은 남미공동시장을 개방적인 경제동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연대하였고, 지난 20년간 지체되었던 EU와의 FTA 협상을 추진해 2019년 6월에 타결한 바 있음.
- 그러나 페르난데스는 시장개방이 회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, 남미공동시장 개방에 있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견해를 달리함.
  -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당선자가 남미공동시장의 무역정책 자유화 노력을 저해할 경우 남미공동시장의 해체도 불사할 것이라고 언급함.
  - 페르난데스는 EU와의 FTA가 아르헨티나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.

■ 한편 페르난데스 당선자는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에 있어 내정 불간섭과 중립정책을 중시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.

- 마크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에 있어 미국 중심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지만, 페르난데스는 마크리 정부의 노선을 폐기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음.
- 2019년 10월 7일 우루과이 진보당(Broad Front)의 대선 후보인 마르티네스(Daniel Martín)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남미 우파정부 회의체인자 대(對)베네수엘라 압박용으로 활용되어온 리마그룹(Lima Group)<sup>3)</sup> 탈퇴를 선언했음.

3) 리마그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와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, 그리고 냉전시기에 미국의 대중남미 간섭정책의 법적 기반으로 활용되었던 TIAR(미주상호원조조약)의 부활을 지지함. '리우조약'이라고도 불리는 미주상호원조조약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 등 23개국이 1947년 체결한 집단 방위조약(이후 멕시코와 쿠바 탈퇴)인데, 2019년 9월 23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TIAR에서 18개국 가운데 16개국(우루과이 반대,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권)이 군사적 개입을 배제한 對베네수엘라 제재조치(마두로 정권 인사 자국 내 자산 동결)에 찬성함.

## 4. 평가 및 시사점

■ 페르난데스는 페론당의 급진좌파 세력을 포용하면서 당선에 성공했지만, 실용주의적인 온건좌파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됨.

- 페르난데스는 분열된 페론주의 야당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고, 노력의 결과로 정권교체에 성공함.
- 페론당 내에서도 온건주의인 중도좌파를 지향하며 급진좌파인 크리스티나 지지 세력을 포용했는데, 향후 통치과정에서는 독자적인 지지세력을 확보함으로써 권력 행사가 가능할 것임.
- 리더십을 통해 중도좌파를 중심으로 여당 정치세력을 더욱 통합하고, 지방정치 연합세력(주지사)을 중앙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임.
- 페론주의 연합 가운데 좌파성향의 크리스티나 정치기반보다는 실용주의적인 온건좌파 세력(페론당 출신 주지사, 민간부문 노조, 반정부 페론주의자)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.
- 페르난데스는 '주지사의 대통령'이 될 것임을 자임했는데, 17개 주 가운데 11개 주의 주지사가 페론주의자이고, 나머지 주의 주지사도 페론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, 이들 대부분은 온건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됨.
-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티나 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페르난데스 정부의 통치에서는 중요한 방향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, 특히 페르난데스 정부가 우파 성향으로 전향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.

■ 차기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긴축과 완화 중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만, 어떤 정책도 아르헨티나 경제를 단기간에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- 공공부채 축소와 재정안정화가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이자 아르헨티나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보임.
- 그러나 페르난데스는 경제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마크리 정부의 긴축재정이 야기한 생활고에 반발한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되었으므로, 마크리 정부의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- 2019년도 경제성장률이 -3.1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지만, 물가상승률이 5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기는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활용에 제약이 있음.

■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현 정부 임기 중에는 물론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, 이러한 가운데 페르난데스 정부의 채무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.

- 지난 8월 말 발표된 약 1,070억 달러 규모의 외채에 대한 만기연장 계획은 정해진 만기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, 채권자들이 재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됨.

- 페르난데스는 액면가 조정 없이 만기만을 연장하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, 시장에서는 최소 40% 이상의 액면가 하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.<sup>4)</sup>

■ 한편 페르난데스 정부가 출범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‘한-Mercosur 무역협정(TA)’ 협상에서 아르헨티나의 시장보호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

-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시장개방 분위기를 활용하여 한국은 남미공동시장과 TA 협상을 진행 중으로, 지난 10월 1~4일에는 4차 공식협상을 진행했음.
- 보우소나루와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마크리 정부는 남미공동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‘한-Mercosur TA’ 협상도 탄력적으로 진행돼왔음.
- 그러나 페르난데스가 아르헨티나 시장보호를 이유로 이미 타결된 ‘EU-Mercosur FTA’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, 향후 한국과의 TA 협상에도 아르헨티나의 시장보호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. **KIEP**

4) “Debt difficulties raise Argentina write-down”(2019. 10. 22), Oxford Analytica.